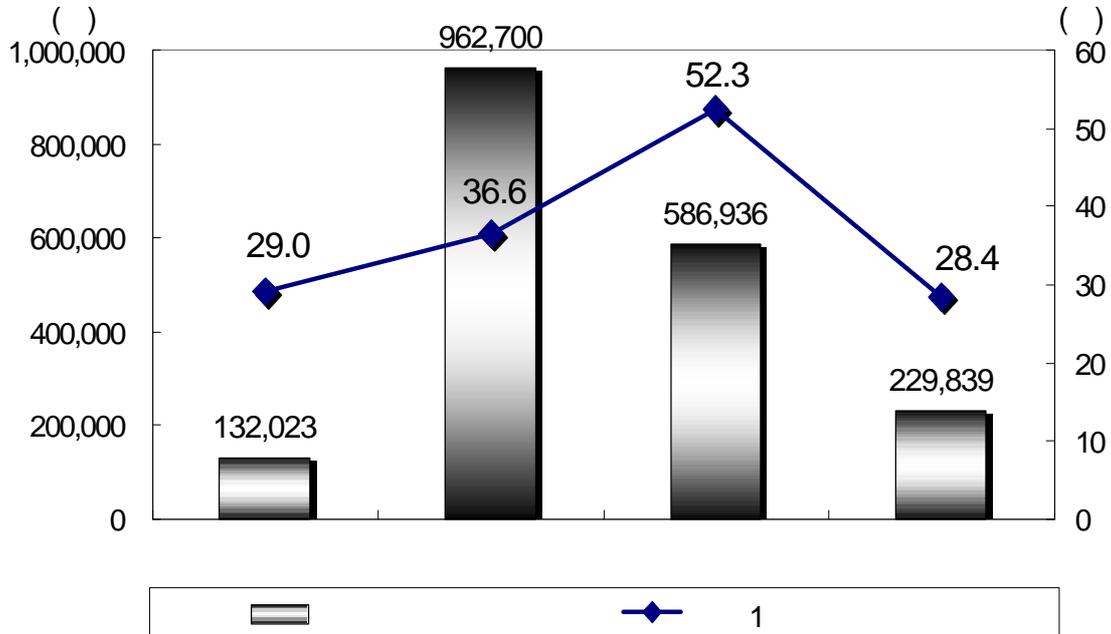


■ 도표로 보는 지식 경제 현황

< 주요국의 연구원수 및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 추이 >



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」, 1998.

주: 한국, 일본은 1996년, 미국, 독일은 1993년 기준

- (지표 특성) 이 지표는 지식 투입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로서 지식의 창출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는 인적 자원의 크기를 나타냄
- (중요성)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는 산업 경제 시대를 주도했던 산업 인력보다는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짐
 - 따라서 연구개발비의 지출에 있어서도 연구설비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와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연구 인력에 대한 지속적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
- (의미) 위의 지표를 보면, 절대 연구원수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며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미국, 일본에 비해 뒤져 있음
 - 특히 IMF 이전 시기인 1996년 지표가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, IMF 이후에 인력차원에서의 국내 연구기반은 더욱 위축되었을 것으로 생각됨

■ 신광철 주임연구원 kcshin@hri.co.kr ☎724-4047